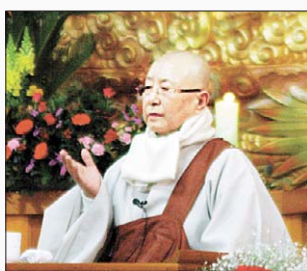


“믿고 맡기고 살겠습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서 법보시마당 펼쳐

자신의 삶을 이끄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밖에서 찾으면 공생이 다하도록 헛수고다. 안에서 찾아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안살림을 들여다보는 일도 쉽지 않다.



법보시 나눔마당에서 법문을 하는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자신의 주인공에게 자기를 믿고 맡기고 살아야 하는 '법보시 나눔마당'이 2월 22일 오후 2시 한마음선원 울산 지원(지원장 혜안)에서 1000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마음과학원이 그간 안양 본원에서 진행했던 마음공부 포럼을 지원에서도 펼친 것. 마음공부 포럼은 스스로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

공을 찾아가는 초초' 그리고 '공생의 삶, 공생의 행'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한마음공생실천과정과 신화과정을 통해 수행의 삶을 성장시켜 온 불자들의 생생한 체험담이 동참한 불자들에게 새로운 신행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날 안양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은 "수없는 윤회를 거치고 거쳐 지금 여기서 인간의 몸을 받아 살고 있는데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늘 주인공의 근본자리를 관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아픈 중생 대자비로 감싸

통도사·양산부산대병원 법당 개원, '복지교류' 협약도

포교의 불모지였던 병원에서 부처님의 정법이 펼쳐진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2월 24일 오후 4시 30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원장 백승완) 어린이병동 4층 모암홀에서 '법당 개원기념 및 정우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개원법회는 협약서 조인, 정우 스님 특별법문, 백승완 원장의 병원 시설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법당 개원 법회에서 법문하고 환자들에게 염주를 걸어주며 쾌유를 기원했다.

정우 스님은 개원법회 법문으로 "부처님께서는 고단한 인생은 살지 않겠고, 고단한 인생은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곧 고단함은 육체이고 고단함은 정신일 것"이라며 "오늘 개원하는 법당이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픈 중생들을 대자비로 보듬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한 "종교의 역할은 윤회와 비타민처럼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조금이나마 환자들의 쾌유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 돕겠다"고 말했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보다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 주는 병원으로 잘 경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승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병원과 의료진은 육체적 고통에서, 병원 내 법당과 스님께서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사안 등이다. 특히, 병원 임직원연수 시에는 통도사 측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수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법회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양산포교당 주지 지수 스님, 서원사 주지 지원 스님, 백승완 양산부산대병원장 및 불자 환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심 담은 장학금 '희망' 심다

신불사·관음사·두승복지관·관음선행장학회

불심을 담은 장학금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 신불사(주지 혜성)는 2월 22일 오후 2시 제5회 자비회 장학증서 전달식을 갖고, 총 20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2040만원은 총 17명에게 각 120만원씩 전달되며, 분기마다 30만원씩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주지 혜성 스님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 단체 '사랑 실은 교토 봉사대' 울산 지대에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신불사 자비회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일회성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과 후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매년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가족 등 어려운 환경의 학생을 선정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꾸준한 지원하고 있다.

혜성 스님은 축사에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에 나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일꾼으로 성장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는 2월 25일 '2009년 두승종합사회복지관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기존 장학생 중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한 정설아 외 7명의 대학 진학생에게 특별 격려금 각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사하구 내 7개 고등학교에서 19명의 장학생을 추천받아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두승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3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이번엔 선정한 19명의 장학생에게도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대표이사 지현)에서도 배석준 외 25명에게 2009년도 장학금 100만원씩 총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늘기쁨마을 대표이사 지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관 략가사 불교공부 바람 '솔솔'

원옥 스님 초청 법회·교리강좌 등

남태평양 광도 한국 사찰 보타산 략가사(주지 도환)는 2월 11~25일 2주간 (사)금강승선 관우회 주최 원옥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략가사에서 열린 원옥 스님 초청법회.

이번 법회에는 원옥 스님의 2주간의 특별 법문 뿐 아니라, 외국이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기초 교리·경전반'을 개설해 현지 교민불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도환 스님은 "이국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들의 큰 신심으로 관음도량 보타산 략가사의 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

가 광도 지역사회와 교민 대중에게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관에서 한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미영(44)씨는 "외국이다 보니 한국스님만 봐야도 너무 반가워 략가사에 자주 왔는데, 이번 경전반을

통해 개인적인 수양은 물론이고, 여러 한국인 도반들을 알게 되서 좋았다"고 말했다.

어학연수를 위해 3개월간 관에 머무는 대학생 한용선 군은 "학교 기숙사 방은 좁고 다른 학생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가끔 오시면 략가사에서 하룻밤 묵는다"며 "굳이 기도를 하거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절에 오면 마음도 편하고 꼭 한국에 있는 것 같아 종종 찾는다"고 말했다.

세계적 휴양지 광 보타산에 자리한 략가사는 관음기도 도량으로, 현지 교민 및 유학생, 여행자 등 불자라면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는 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1-671-687-6351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일념장학회

경봉 스님 가르침 이어 '공부 수발'

"곧 동아대학교 새내기로 입학하는데 등록금이 보탬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이동욱, 동성고3) "오늘 제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저도 어른이 되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박지은, 양은고3) 한 사람 한사람 이름이 차례로 불리던 단정하게 교복을 갖춰 입

'스님들 공부 수발을 잘하라'고 강조했다. 그 가르침을 받들어, 현재 미국에서 해외 포교를 하는 법촌 스님의 유학시절 학비를 돕기 시작하면서 일념장학회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승가대학 학비지원을 거르지 않는다"고 회상했다. 뜻을 모은 지 30년이 지난 지



14년째 '공부 수발'에 여념 없는 일념장학회의 장학금 수여식.

은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할머니들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받고는 함박웃음을 짓는다. 낯선 법당에서의 생소한 불교의식이지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의례 장학금을 받기 위해 모인 아이들은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도움 받으려 온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죽어있기 마련인데, 웬 일인지 이곳의 장학생들은 밝고

금, 불교계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단체는 많지만, 일념장학회는 오직 어머니들이 주는 장학금이기 더욱 남다른다. 창립 당시 아주머니였던 회원들은 모두 할머니가 됐다. 하지만 그 신심과 열정은 변함이 없다.

2월 21일 오후 3시 부산불교 실업인회관 4층 모암선원에서는 '아주 유쾌한 장학금수여식'이 열렸다. 바로 재단법인 일념장학회(회장 이영채)의 제14회 장학금수여식이다. 일념장학회는 매년 승가대학 및 종합학교 재학생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년보다 많아, 고등학교 10명, 대학생 2명을 비롯해 승가대 동국대 등에서 공부하는 스님 4명 등 16명에게 총 1000만원이 전달됐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장학금을 준지 벌써 14년째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좀 더 많은 금액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부디 스님들께서 공부에 정진하셔서, 우리 중생에게 깨우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일념장학회 어머니들이 부처님을 기르는 마야부인들이라면, 이들이 주는 장학금은 엄마의 첫 줄기다. 이들의 보살행으로 불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이곳이 바로 불국토가 아닐까. (051)818-9914 **박지원 기자**

이영채 이사장은 "경봉 스님께서 극락선원에 계시던 당시, 늘

www.bba.or.kr

국제불교민속전시와 함께하는
(한국, 일본, 티벳, 네팔(인도), 중국, 앙코르 윌트)

2553 불교산업박람회

Buddhism Industry Expo 2009

2009. 3.26 (목) ▶ 3.29 (일) BEXCO 2홀

| 문의처 | 조직위원회 사무국 051-740-7900

나라 살리는 MICE, 경제를 깨우는 쇄북소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부산지역 불교 31 종단의 연합추진로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2553 불교산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2009년 '신규전시회 개발분야'에서 유일한 지원대상으로 '2553 불교산업박람회'를 선정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글로벌 환경에서 약진하는 한국불교산업의 보루이며,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로서 경쟁력 높은 MICE 아이템을 선포하였습니다.

불교상품은 불교계에서 필요한 일체의 용품과 서비스는 물론, 불자들의 가정과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며, 불교기업은 불교상품을 생산/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불자로서, 불교를 구현하는 불자기업으로서, 불교산업의 생산/유통자로서, 제품과 서비스의 명예를 걸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아시아, 지구촌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에 불교산업발전을 위해 기쁜마음으로 동참하시어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석 정 여 스님(범어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석부위원장 류 화 산 스님(삼광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상임부위원장 김 경 각 스님(미륵사 회주,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이하 위원 공동 합장

주제관
사찰홍보/안내관(A) - 종단, 사찰의 안내 및 법회의 홍보 등
부처님오신날관(B) - 시민연동축제, 신행단체, 불교교육기관, 신도회 등
불교용품/선물관(C) - 예배/법회/재 용품, 공양/선물/기념/장식품 등
불사관(D) - 건축/인테리어 자재, 토목, 조경, 불교장엄, 법당장식품 등
정보관(E) - e-템플, 방범/방송장비, 금융/상조, 불교서적, 관광/레저 등

체험관(F) - 녹차, 대용차, 다도, 다구, 승복, 법복, 한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
웰빙관(G) - 사찰음식, 식기, 건강/웰빙식품, 건강/실버운동기구, 서비스 등

특별관
국제 불교민속전시 - 한국, 일본, 중국, 네팔(인도), 티벳, 앙코르윌트

3X3 BOOTH : 288EA

| 주 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주 관 | 불교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 후 원 | 부산광역시 BBA |